

【전후 70년】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당시 시가지의 60% 이상이 소실되어 약 2,000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1945년 6월 29일 새벽 오카야마 공습으로부터 70년. 올해도 어제 오카야마시 전몰자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유족회 대표 등의 인사를 들으며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전쟁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카야마 공습에 대해서도

- B29에서 쏟아지는 소이탄으로 오카야마의 거리가 새빨갱게 되었던 것.
- 다음날 오카야마 역에 갔을 때 근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히가시야마 산이 눈앞에 보였던 것.
- 마을 사람들이 히로시마로 피난 가자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갈 곳도 없으며 오카야마에 남았었는데 히로시마로 피난 간 사람들은 원폭 피해를 입었다는 것.

등의 이야기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당시는 「제로센 하야토」 「시덴카이의 타카」라는 전쟁 만화가 유행하고 그것을 탐독했던 적도 있었고, 때때로 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B29와 전투기에 공격당하는 꿈을 꾸고는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깬 기억도 아울러 상기되었습니다.

앞의 대전으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저에게 전쟁 이야기를 해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전쟁 이야기를 해주는 분도 적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행사에는 시내의 약 200명의 초·중학생도 참가했습니다만 중학생 대표로 추도사를 읽은 오카야마 시립 요시다 중학교 미야모토 레이나 씨의 「수학여행을 나가사키로 다녀왔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 곳곳에는 아직 전쟁의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이야기 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해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뜻 보면 모르는 것 같은 곳에도 후세에 전해야 하는 「과거」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저로서는 향후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자녀와 손자 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한 명의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국내외의 분들과의 깊은 교류를 나누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